

보도 일시	2022. 10. 18.(화) 09:30	배포 일시	2022. 10. 18.(화) 08:00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책임자	과 장 이동엽 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 송희경 (02-2100-2531)
			주무관 김희진 (02-2100-2758)

## 투자·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현장간담회 개최

### 1 현장간담회 개요

□ 금융위원회는 '22.10.18.(화) 권대영 금융위원 주재로 핀테크 스타트업 현장간담회\*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및 금융·투자회사와 함께 핀테크 업계의 금융환경을 점검하고, 「투자·대출 등 자금조달 분야 건의사항」을 청취 하였습니다.

\* 1차 간담회는 9.22일 개최하였으며(금융규제 및 혁신서비스 분야 건의사항 청취), 3차 간담회는 금융규제샌드박스 참여수요가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으로 개최 예정

- 일시·장소 : '22.10.18일(화) 9:30,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
- 주제 :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·금융지원 분야 개선과제
- 참석
  - [금융위원회] 상임위원(주재), 금융혁신과장, 산업금융과장, 샌드박스팀장
  - [유관기관] 금융감독원, 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업은행, 성장금융, 디캠프, 핀테크지원센터, 핀테크산업협회
  - [금융·투자회사] KB금융지주, 신한캐피탈, 롯데벤처스·KB인베스트먼트·카카오벤처스(VC), 디티앤인베스트먼트·인포뱅크(AC)
  - [핀테크 업계] 초기·중소형 핀테크 기업 10개社\* 대표

\* 모비틀, 베스트핀, 빅밸류, 센트비, 스몰티켓, 에스씨엠솔루션, 올링크, 윙크스톤 파트너스, 크레파스솔루션, 핀마트 (가나다순)

## 2 현장간담회 주요내용

- 권대영 금융위원회 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리상승,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등 혁신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,
  - 글로벌 경제·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,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핀테크 생태계가 유지·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.
- 특히, “핀테크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성장해 나가는 핀테크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”을 위해서는 “중·소형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”가 필요하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씀을 언급하며,
  -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핀테크 지원기관들이 함께 「핀테크 분야 지원방안」을 마련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.
-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현재 핀테크 스타트업이 직면한 금융환경과 개선과제를 다각도로 점검하였습니다.
  - ① 금융·투자회사들은 최근 보수적인 투자기조가 확산되고, 전반적으로 핀테크 분야 투자가 위축된 분위기이나,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하면서
    -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투자 마중물 역할과 M&A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.
  - ②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투자유치·대출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.
    - 특히, 최근 경제·금융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미래가치보다는 매출 규모 등 현재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금

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언급하면서, 정책금융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.

③ 한편, 그동안 정부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금융지원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,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정책금융기관(기은·신보·산은)들은 핀테크 전용상품을 운영하는 등 핀테크 기업에 대출·보증·투자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, 어려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핀테크 분야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\*하기로 하였습니다.

\* (예시) 핀테크 분야 전용상품 신설/규모확대, 대출·보증심사 개선(성장가능성 중심 심사) 등

### <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분야 지원현황 및 지원실적 >

◆ 정책금융기관은 핀테크 전용상품을 운영 등 '19년 이후 약 5,700억원 대출·보증 지원  
· 또한, 핀테크 분야 펀드출자('19년 이후 230억원+@) 및 직접투자(100억원+@) 등 투자 지원

#### (1) 기업은행

- 성장금융의 「핀테크 혁신펀드」에 앵커투자자로 참여<sup>1)</sup>하는 등 핀테크 투자 지원<sup>2)</sup>
  - 1) IBK K-Growth 혁신솔루션 펀드가 핀테크 혁신펀드와 매칭 투자(3년간 총 230억원)
  - 2) 2018 IMM벤처펀드(1,135억원 규모), KAI-KVIC 스마트공장 투자조합(300억원 규모) 등
- 이 외에도 「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」 제도\*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 대출 지원
  - \* 미래 핵심동력 산업 영위 기업, 유망서비스산업, 혁신성장 기업 등에 최대 Δ 1.0%p 우대금리

#### (2) 신용보증기금

- '20.5월부터 연간 120억원 규모의 「핀테크 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」 운영
  - \* (기업별 한도) 운영자금 3억원 / (우대사항) 최대 100% 보증 및 보증료율 우대
- 이 외에도 신성장동력산업 보증\* 등 여러 보증지원 제도를 통해 핀테크 기업 지원중
  - \* 핀테크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품목 생산 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대해 연간 550억원 보증지원

#### (3) 산업은행

- 핀테크를 포함한 혁신성장·서비스산업에 대해 시설·운영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<sup>1)</sup>하는 한편, 핀테크 기업에 직접 투자<sup>2)</sup>
  - 1) (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) 시설 2000억·운영 500억원 한도, 최대 Δ 0.6%p 우대금리  
(서비스산업 지원자금) 시설 1000억·운영 500억원 한도, 최대 Δ 0.5%p 우대금리
  - 2) 투자실적 : 4년간 약 3,000억원('19년 200억 → '20년 257억 → '21년 1,380억 → '22년 1~9월 1,090억)

**< 정책금융기관 투자실적 >**

(단위 : 억원)

	'19	'20	'21	'22.1~9월
<b>기업은행</b>	<b>411</b>	<b>453</b>	<b>442</b>	<b>243</b>
대출	340	440	432	238
투자*	71	13	10	5
<b>신용보증기금(보증)</b>	<b>202</b>	<b>216</b>	<b>312</b>	<b>129</b>
<b>산업은행</b>	<b>972</b>	<b>1,559</b>	<b>1,862</b>	<b>1,992</b>
대출	772	1,302	482	902
투자*	200	257	1,380	1,090

\* 직접투자(펀드출자 제외)

- 한편, 5000억원 규모의 「핀테크 혁신펀드」 운용을 통해 핀테크 기업 투자·성장촉진의 성과가 있었으나, 핀테크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\*하기로 하였습니다.

\* (예시) 보육기관(사업초기 스타트업 지원)·금융기관(사업성을 인정받은 성장기업 투자)과 연계하여 보육·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간구간(데스밸리)에 있는 핀테크 업체 투자 확대 등

**<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실적 및 성장사례 >**

◆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「핀테크 혁신펀드」 조성 (☞개요 첨부)

**(1)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실적**

- 1,500억원 모펀드<sup>1)</sup>에 민간투자를 매칭하여 4년간('20~'23년) 총 5,000억원 투자 목표 → '22.9월말 현재 총 3,216억원 조성<sup>1)</sup>, 2,419억원 투자 완료
- 1)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과 금융유관기관이 출자하여 '19.12월 모펀드 조성
- 2) 성장금융 모펀드 1,120억원 + 민간자금 2,096억원

**(2)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기업 성장사례**

- (주)한국신용데이터\*는 혁신펀드 투자당시 기업가치가 3,250억원에 불과했으나('20.8월), 지속 성장하여 현재는 기업가치 1.1조원으로 유니콘 등급
  - \* 중소기업자 매출·회계관리 플랫폼 '캐시노트' 출시, 중소기업인 사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(CB) 진출
- (주)파운트\*는 투자당시 기업가치가 600억원에 불과했으나('20.5월), 현재는 2,460억원
  - \*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B2B·B2C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업체
- 이 외에도 성공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혁신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유치, 유관기관 협업(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), 보육기관 연계, 판로개척 등을 지원 중

### 3 향후 계획

-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에 이어, 금융규제샌드박스 참여수요가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- 간담회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,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책임자	과 장 이동엽 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 송희경 (02-2100-2531) 주무관 김희진 (02-2100-2758)
<공동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 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 정태호 (02-2100-2861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	책임자	팀 장 이종림 (02-2100-2841)
		담당자	사무관 한필윤 (02-2100-2859)
<공동>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	책임자	국 장 김용태 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 김택주 (02-3145-7125)

## 첨부

## 핀테크 혁신펀드 개요

-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「핀테크 혁신펀드」 조성·운영

※ 「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」 후속조치('19.12월 발표)

### ① [출자] 은행, 유관기관 등 금융권이 총 1,500억원 출자

\* 은행 및 디캠프·코스콤 1,200억원 + 성장금융의 성장사다리펀드 300억원

### ② [투자규모] 총 5,000억원 규모

- 1,500억원의 금융권 재원(모펀드)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매칭하여 핀테크 및 혁신기업에 총 5,000억원 공급 목표

→ '22.9월말 현재 총 3,216억원\* 조성, 2,419억원 투자 완료

\* 성장금융 모펀드 1,120억원 + 민간자금 2,096억원

### ③ [운영방식] 금융권 출자재원으로 성장금융이 모펀드 결성

→ 핀테크 전문운영인력·전담조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민간운영사를 선정, 펀드운영 위탁

\* 민간(위탁)운영사는 모펀드 출자금액과 민간 투자자금을 매칭하여 펀드투자

